

# 양록생산물의 이용과 유통체계의 개선

주제 : 생산물의 이용과 유통체계의 개선

김 찬 규  
(한국양록협동조합장)

양록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는 무엇보다 생산물의 유통구조의 개선이 선행되어야만 안정된 경제적 축산업으로서의 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 생산물이라함은 주생산물인 자록의 생산과 부산물인 녹용, 녹혈, 녹육, 녹골, 녹미, 녹신 및 녹피 등을 일컫는다.

## 1. 사슴자체의 유통

사슴을 사육하여 자록을 생산하고 분양하는 일은 축산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슴가격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사슴자체의 유통은 앞으로 많은 상황변화에 따라 차츰 정립되어질 것으로 생각되나 현단계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간의 사슴사육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1973년 이전까지는 몇몇 농장에서 관상용으로 사슴을 사육하여 희귀한 동물로 여겼으며 1974 ~ 1975년에 본격적으로 사슴이 수입되면서 사슴농장이 생겨나게 되었고 1975년 이후에 사슴수입이 금지되므로 인하여 사슴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면서 부유층과 특수계층이 매력을 느껴부업적으로 농장에 입식하므로써 사육붐이 조성되면서 사슴가격은 더욱 상승되었다. 이때 사슴을 사고자해도 사슴을 어떻게 구입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전개되자 직·간접으로 사슴을 접했던 사람들이 직접 중개에 나서므로써 전문적으

로 사슴을 거간하는 중개상인이 등장하게 되었고 매년 계속적인 가격상승과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투기의 대상이 되었으며 사고파는데서 오는 차액으로 수익성이 좋아지자 더욱 거래는 활성화되고 중개상인의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하여 1980년에 들어 1985년까지 사슴가격은 최고가를 이루었으며 중개인에 의한 유통질서는 많은 혼란을 가져왔던 것도 사실이며 1986년부터 사슴가격이 하락되면서 1989년초까지 중개인의 활동도 저조하였으며 반면 사슴의 두수가 증가하고 보편화되므로써 사슴거래 질서도 많이 정립되었고 1990년에 들어 사슴가격이 다른 물가에 비하여 현실화되면서 다시 거래가 활성화되므로써 중개인들도 유통에 참여한다는 금지와 그리고 스스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유통인단체의 결성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수도 1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상업적인 유통인에 의하여 사슴사육의 붐이 조성되고 유통을 활성화시키는데 그들이 기여한 바도 크다고 생각하나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이 밝은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들 스스로 이제는 비양심적인 유통인은 도태 격리시키는데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했듯이 어두운 면도 있었다는 것은 집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다.

현재 대부분의 양록인들은 “월간사슴”의 설

문조사에서 나타나 있듯이 양록산업의 문제점으로 유통구조의 개선을 제일로 부르짖고 있지만 사슴이 다른 가축과 달리 야성을 지니고 있어 다루기가 어렵고 특히 이동 등 제반 여건이 수월치 않으므로 시장 경제를 실현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애로점이 숙제로 남아있다.

금번 양록협회에서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사슴분양장을 지정하여 가격이나 분양자체에서 오는 잡음을 해소토록 시도한다고 하였으나 현실적 상황에서 볼때 이러한 문제에도 기존 유통인들이 반발하고 나서므로서 당분간은 상인들에 의한 유통거래가 지속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슴 분양장 지정은 잘 운영되면 현실정에서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신뢰를 바탕으로 유통거래 질서를 회복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서 사슴시장개설의 시초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잘못 운영되면 일부지정 분양장이 전문적 중개인 농장으로 탈바꿈하는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으며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결과가 파생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그러므로 사슴자체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우선 공신력이 있는 단체에서 모든 분양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앞으로 양록협동조합은 경제적기능을 활성화하여 유통체계를 확립시키며 양록인 스스로의 권익을 찾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양록조합은 이제 겨우 창립총회를 거쳐 인가를 얻고 설립기반 구축에 힘써야 하므로 지금 당장 유통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 조합의 기능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면 점진적으로 자연히 유통문제는 개선되리라 생각된다.

즉 조합내의 생장물 사업을 통하여 생산되는 사슴새끼와 종록개량사업을 통해 생산된 우수한 사슴을 조합해서 직접 운영하는 농장에서 분양토록 하며(매취사업), 조합원들이 생산한 사슴을 수탁판매하는 일(수탁판매사업) 조합은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고 거래에 입하되 사슴을 종류별, 개체별특성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정하고 적정가격에 경매하므로써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또한 사슴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에서 구매하고 사슴을 분양받기가 어려울 때는 판매하므로써 수급조절기능을 갖게되어 사슴가격의 안정은 물론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슴두수의 증가로 인하여 사슴가격의 하락이 예상될 때는 녹용 등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저능력 사슴들을 구매하여서 도태시켜 녹육이나 가공이용에 사용하므로써(계통출하) 생산물의 경제성을 재고시키며 사슴가격의 변동을 최소화시키므로써 양록인은 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단, 수탁판매시는 위탁사육비를 판매되는 기간동안 산정하여 지불하면 되므로 이러한 체계가 확립되면 자연히 사슴시장이 개설되는 것이며 한달에 2-4회정도 경매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는 조합이 활성화되고 축협중앙회의 지원과 정부당국의 정책적 차원에서 진행될 때에 더욱 조합의 사업은 가속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축산업으로서의 정착은 물론 경제적산업으로 육성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부산물의 유통

부산물 중에서 특히 녹용과 녹혈은 현재 우

리나라 양록업의 주 수입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때 이러한 생산물의 판로 확보는 양록업이 축산으로 정착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하겠다.

이미 양록업은 특수가축의 굴레를 벗어나 일반 농가의 대체축산으로 전환되어 사육분야 조성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그간 생산물을 개입판매에 의존하여 직접 생산자가 소비자를 구하는 유통체계는 한계성이 있을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인 사슴두수의 증가로 지역적, 사회활동 영역등의 제반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은 더욱 판로문제가 심각해질 것은 뻔한 일이며 사슴가격은 물론 생산물가격의 불안정으로 양록업은 발전은 커녕 퇴보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유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정부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한의업계의 새로운 인식전환과 공동협조노력 그리고 양록업계의 진취적이며 합리적인 운영을 통한 연구노력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현안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 가. 녹용

1) 한의업계의 국산 녹용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과 협조가 요구되어진다. 즉, 국내산 사슴은 사슴의 생리적 특성에 맞춰 수렵류 등으로 위주로 사육할 뿐 아니라 4계절이 뚜렷한 기후적 호조건에서 집약적인 사양관리를 하는 관계로 생산물인 녹용도 질적, 양적으로 외국산 사슴의 동종간, 동기에 절각을 하였을때를 비교하였을때 국내산 녹용이 더 우수하다고 자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산 녹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상업성에 치중되어 국산녹용에 대하여 학술적연구 결과의 뒷받침도 없이 무조건 약효가 떨어진다는 등의 상술적 행위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2) 녹용의 사용에 관한 명확한 법적한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생녹용을 농산물로 인정할때와 약품으로 인정할 경우에 따라 이용과 유통문제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양록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하겠다.

#### ○ 생 녹용을 농산물로 인정할때

생 녹용을 농산물로 인정한다면 건조하여 약품으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농산물로 인정해야 한다. 현재 수입 녹용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간단한 이화학적검사와 관능검사를 실시하여 통관시키는 것과 같이 국내 녹용도 생산자가 건녹용까지 생산하여 검사과정을 거치도록 동등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외국산 녹용의 건조기술은 중국의 경우는 재래식 방법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뉴질랜드의 경우는 현대식 기계와 기술을 도입하여 건조한후 상품화하여 수출하고 있지만 건조기술자는 실제로 한국기술자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건조과정은 생산자가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꼭 국내 녹용만 제약을 가하고 싶다면 정부 당국에서 정한 일정기준의 시설을 보유한 사람에게 건조허가를 해주는 방법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양록업자가 생산물을 생산하면 양록협 등조합은 녹용을 구매하거나 수탁을 받아 건조한 후 검사과정을 거쳐 등급에 따라 공개입찰하여 판매하되 한의원이나 약국 또는 한약재 공동구매 조합등에 공급하므로써 유통체계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또한 식품개발을 위한 가공이용에 있어서도 녹용주, 녹용드링크 등의 강장식품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유통영역을 넓힐 수 있다.

단, 농산물로 인정을 받을때 특별소비세를 면제시킬 수 있는 조건을 부여 받을 수 있으나

농산물이 완전 개방되는 '97년이면 자연히 특별소비세는 없어지게 되며 냉동상태의 생녹용도 추천없이 수입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록생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는 현행 녹용의 수입추천권은 농수산부(양록협회이관)에서 담당하여야 하며 검역과정을 거친후 검사과정만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취급하도록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녹용을 약제로 사용하는 한의업계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이나 수입되는 녹용량을 파악하여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어야한다.

#### ○생 녹용을 약품으로 인정할때

생 녹용을 약품으로 취급하게 되면 생녹용의 수입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므로 농산물의 수입자유화에 의한 냉동 생녹용의 국내 반입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생녹용도 법적 제약을 받게 되므로 국내 사육두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꽃사슴의 생녹용 판매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국 개인판매가 제약을 받게되므로 경제적 사육기반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으며 외국 수입녹용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이 없으므로 많은 불이익을 당할 뿐 아니라 한의업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격면에서도 항상 불안하므로 안정된 사육을 할 수가 없게 된다. 또한 취급규정 자체가 까다로와 한의사나 약사에 의하여만 유통이 가능해지므로 정부당국에 의한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지 않는한 양록업은 산업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녹용이 외국으로부터 마구 수입될 수 없는 장점은 있

으나 녹용의 가공 이용개발 등을 통해 양록산업이 육성발전될 수 없을뿐아니라 유통에 있어서도 활성화가 어렵게 된다. 협회의 정책개발 사업에서도 밝혔듯이 녹용의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는 국내산과 외국산 녹용을 모두 규격화하여 품질표시를 한다음 조합과 같은 경제적 단체에서 운영하는 유통센터를 통하여 판매토록 하므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나. 녹혈 (Deer's Blood)

녹혈은 녹용과 더불어 그 효능에 대하여 이미 중국의 정교 본초강목에 기술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인 이상인 박사의 논문 초록에서도 “전신쇠약을 보하여 주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조혈작용과 심장쇠약 및 신경쇠약, 폐기능쇠약 등에 효력이 있으며 부인들의 자궁수축 미약으로 인한 자궁출혈증 등을 치료한다.”라고 서술되어 있고 “녹혈”이란 뺨을 절각할때 흘러나오는 피를 말하며 피가 응고하기전에 복용하는 방법과 응고시켜 바람에 건조하여 덩어리모양의 혈편을 4~8g씩 환산체에 넣어 복용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므로 녹혈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한의학계의 인정과, 널리 보급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차원의 양록업계의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현재 절각시 채취하는 녹혈은 피가 응고하기 전에 복용하는 방법이며 앞으로 두수의 증가로 녹혈의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면 한방에서 환제용으로 혈편으로 복용하는 것과 같이 현대식 방법으로 녹혈 powder로 만들어 capsule에 넣어 강장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 다. 녹육(Venison)

녹육은 다른 가축의 고기에 비하여 고단백질과 저지방을 함유한 육류로 알려져 있으며 이미 유럽사람들에 의해 현대인의 식품으로서 매우 인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15년전부터 서독으로 녹육을 수출하고 있으며 그 양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국제가격도 우육에 비하여 약 3배 이상에 달하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애용하는 원인은 기호성은 잘 모르지만 건강식품으로의 인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일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호텔에서 사슴고기(Venison)를 선보여 왔지만 극소수의 사람만 접하였을뿐 대중화 되지는 않고 있다. 또한 요리방법이 달라 기호성 문제도 있으므로 만일 우리나라에서 녹육을 사용하게 된다면 요리방법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 상황은 '91년이면 녹육이 개방되는 해이므로 녹육수입 자유화가 우리나라의 양육업계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국제 경쟁력의 약화로 양육업은 고전을 면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양육조합은 생산물의 수급조절 차원에서 수입되는 녹육의 유통체계에 깊이 관여하여 축협중앙회의 지원을 받아 직판장 개설 등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유통질서를 체계화함으로써 국내 사슴가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조합은 양육업을 경제적 축산으로 정착화시키기 위하여 매년 예상되는 사슴두수의 증가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저능력육의 도태처리를 과감히 실행함으로써

사슴가격의 안정을 기여해야 하며 이러한 일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축산물처리장인 도축장 운영을 함께 실시하여 수입육의 부위별 포장육을 비롯한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국내생산육의 이용개발을 다용화하여 녹육을 비롯한 녹골등 부산물의 이용을 녹육회, 녹육포, 녹골즙, 녹육햄 등 경제적 이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라. 기타 녹신, 녹미, 녹피 등 부산물

녹신이라 함은 수사슴의 생식기를 말하며 한방에서 정력강장제로서 이용을 하고 있으며 말려서 약제로 사용하거나 술에 담궈 녹신주를 만들어 마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

녹미라 함은 사슴의 꼬리로서 주로 겨울에 도살한 사슴에서 취할 수 있으며 Fattingt-ail이라하여 꼬리부위에 영양을 집합하는 생리적 특성(야생동물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또한 한방의 약제(강장제)로 사용되어 왔으며 건조하여 사용한다.

녹피는 사슴의 가죽으로,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피부병 등에 사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한방에서는 기술하고 있으나 주로 피혁제품 제조에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골프장갑이나 고급 피혁 제품에 이용될 수 있다.

이렇듯 각 장기나 가죽도 이용가치가 크므로 도축시 생산되는 부산물도 건조시설을 이용하여 상품화하여 한의학계에 공급하거나 식품으로의 이용등 개발이 필요하며 모든 생산물은 조합에서 수매하여 공동출하하하므로써 유통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